

지역 소식통

완주, 비상방역 대책반 운영

완주군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주민과 귀성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설연휴 비상방역 대책반'을 추진한다.

7일 완주군은 설 연휴 기간 타 지역 이동 증가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필요성에 따라 비상근무조를 편성,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1월 전국 360명)으로 발생하고, 호흡기세 포용합바이러스 감염증(RSV)은 최근 4주간 400명대로 발생해 당분간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완주군보건소에서는 호흡기 및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으로 손씻기(비누로 30초 이상)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먹기 △공간 구분하기(유증상자 집에서 쉬기, 환자와 생활공간 분리하기) △환경 소독하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및 위장관 증상시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를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쓰레기 없는 명절 연휴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했다.

시는 설 연휴 귀성객 증가와 선물 포장재 배출 등으로 쓰레기가 다량 발생할 것이 예상돼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청소자원과 운전직, 미화원을 포함한 직원 40여명이 3개조로 나눠 시청사 거리, 전통시장, 구산사거리 등 시내 주요 거리의 시민, 상가 등을 직접 찾아가 쓰레기 없는 명절 연휴를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 수거일 등을 홍보했다.

설 연휴(9~12일)에는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청소상황실(☎주간 540-3776, 야간 540-3222)을 운영해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총괄 대응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및 직원 휴무로 인해 명절 당일(10일)은 수거하지 않고 일요일(11일)은 시내권만 수거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기업 소통 행보 지속

'친환경 전동 골프카트 생산기업' 호원이피에스 방문

정성주 김제시장이 7일 자동주행 전동 골프카트 전문기업 (주)호원이피에스 현장을 방문하며 기업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앞서 지난 5일, 1억불 이상 수출을 달성한 로얄캐닌코리아 기업 방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기업 소통행보다.

이날 (주)호원이피에스 최성복 대표로부터 기업 소개와 2024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계획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호원이피에스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지난 2020년 10월 김제 자유무역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실시해 유틸리티 전동카트 생산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8인승 자동주행

(AGV: Auto Guided Vehicle) 전동 골프카트를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으로 납품하며 국내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동 전동카트 분야 (2인승, 5인승, 8인승, 11인승) 국내 골프카트 시장의 70% 이상 점유하고 있다.

더불어 이달 중순 골프카트 자동주행(AGV) 시험장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완공할 예정이며, 해당 시험장은 20~25도의 극한 경사를 구축해 제품 개발 및 안전성 테스트에 사용된다.

(주)호원이피에스는 유틸리티 전동카트의 최적화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전주비전대와 '철단 제조기술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하



정성주 시장

고 있어 (주)호원이피에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성주 시장은 "경기 침체 가운데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됨을 축하한다"며 "(주)호원이피에스가 골프카트의 선도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6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실버타운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관 대강당에서 설명회 행사를 진행해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설 명절행사 성료

새해인사와 명절 떡 나눔으로 따뜻한 어울림의 장 마련

김제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기보)은 지난 6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실버타운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관 대강당에서 설명회 행사를 진행해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또 가족사랑요양병원에서 진행한 무료 혈액검사 및 당뇨검사, 기념품 증정 이벤트도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새해 인사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노기보 관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과 후원 기관 및 단체에 감사하다"며 "갑진년 새해를 맞아 각 가정

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서비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공영 마을버스 삼례도 운행 시작

지선 8개 노선 13일부터 시범 운영... 무료 이용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는 완주군이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시범운행에 돌입한다.

7일 완주군은 오는 13일부터 약 2주간 삼례 방면 공영제 마을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시범운행 기간에는 무료로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례지선 8개 노선(30, 31, 32, 33, 34, 34-1, 35, 36)이 전주 시내버스에서 완주군 마을버스로 변경돼 운행하게 된다.

군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인 공영제 운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완주군은 지난 2021년 이서면

을 시작으로 2022년 소양면, 동상면, 상판면, 구이면의 공영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이를 경험 삼아 삼례도 최적의 노선을 준비했다.

기존 삼례터미널을 종점으로 하던 시내버스를 삼례역으로 기점을 변경했으며, 삼봉지구, 운곡지구를 운행하는 노선도 강화했다.

완주군은 노선개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시간표를 안내하는 안내책자를 제작해 배부하고, 마을방송과 현수막 게시, 버스안내 단말기 홍보 등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주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버스 공영제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버스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중증정신질환자 위한 2024년 설맞이 나눔행사

음식만들기, 선물전달 등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7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중증정신질환자 회원들과 함께하는 2024년 설맞이 '2024년을 환영해용(龍)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에 회원이 고립감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설맞이 음식만들기 프로그램과 선물전달 등을 통해 정서적 환기 및 즐거운 여가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했다.

행사는 △설날 포토존 사진 촬영, △설맞이 전통 노래가 만들기, △설맞이 음식(화과) 만들기, △설 선물 전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설날에 이렇게 다같이 모여 프로그램을 하니 외롭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서 "특히 화과 만들기는 처음 해보았는데, 어렵지 않아서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행사가 진행되면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소외감을 느끼거나 가족들과

함께 하기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자분들이 많은데,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내고 한 해를 보람차게 시작하는 발걸음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2024년에도 알찬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민의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관련은 김제시보건소(063-540-2716~7),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542-1350)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완주군이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

7일 완주군은 논·밭두렁 불법소각 및 산림이용객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대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읍·면 산불감시원 등 총 110명을 동원해 산불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입산 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출입통제, 화기물 소지 및 산림 내 흡연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 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산불 조심 깃발, 현수막을 설치해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홍보한다.

소각행위 취약 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적

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한다.

이외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통해 산림인접지역(산림과 연결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영농부산물 제거작업(부산물파쇄)을 지원해 산불방생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용진읍 운곡리 일원에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해 산불 진화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공간 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대응 체계를 갖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봄철 발생하는 산불은 대형산불로 커질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며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